



○계열화를 위주로 한 채란양계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방안

-좌장 : 가축위생연구소장 박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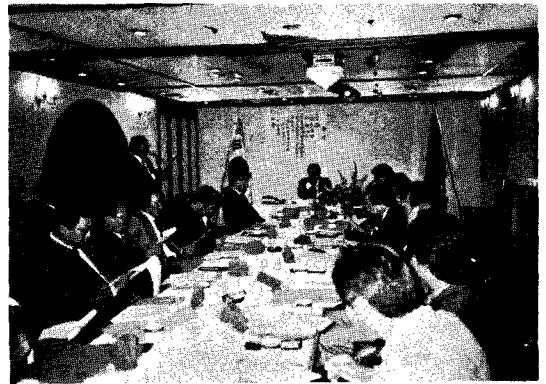
-발표자 :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회장 박영인

○양계조합을 중심으로한 채란계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방안

-좌장 : 서울대 교수 심영근

-발표자 :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강희구

제3차 이사회 개최



한국채란양계산업의 안정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11월25일(금), 본회 및 가금학회 공동으로-

본회와 한국가금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88년도 제2차 심포지움 「한국 채란양계산업의 안정화와 발전방향」이 11월26일(토요일) 오전10시부터 반도 유스호스텔 에서 푸리나코리아 협찬으로 개최된다.

그간 양계산업이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과 생산과잉으로 인한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오던 ▲쿼터제 도입 ▲계열화체제도입 ▲양계협동조합 도입 등을 놓고 다소간에 이견이 제기되어 산업발전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심포지움이 열리게 된다.

○쿼터제 도입에 의한 채란양계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방안

-좌장 : 전 고려대 교수 이재근

-발표자 : 서울대 농대 학장 오봉국

본회 제3차 이사회가 지난 10월19일(수) 오후3시부터 대우빌딩 지하 만다라에서 개최되었다.

정태원 회장의 인사에 이어 전회의록 보고, 협회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부의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인옥 본회 전무는 △소비촉진 홍보사업 △생산성향상, 생산조정, 가격안정에 대한 지도조사업무 △닭경제능력검정사업 △유통구조개선 사업 △감별사 양성 △정책연구개발 △발간사업 및 정보전달 △조직강화 △방역사업 등 협회주요업무 보고가 있다.

이어 양계업의 전문화로 효율적인 부화종계분과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해 정관개정시까지 산란계와 육계로 분리·운영키로 결의했다.

한편 기타사항에 대한 토의에서 본회의 부화·종계·채란·육계 감별업종으로 통합된 현행조직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자유스런 의사를 교환, 본회의 현재 기구 범주내에서 각 업종별 기능을 최대화해서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키로 하고 내년 총회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해 검토키로 했다.

'88년도 제2차 감별사 시험실시 -12월2일(금) 천안 복지농장에서-

88년도 제2차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일정이 확정 발표 되었다.

본회 '88 기본사업계획에 의거 초생추 감별사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2차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은 지난 1차 시험까지는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으나 이번2차 시험은 복지농장내에서 12월2일에 치러지게 된다.

응시자격은 갑종시험일 경우 시험에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자, 고등시험일경우는 본회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검정규정에 의함 및 갑종시험 합격한자로 되어 있다.

응시서류 접수기간은 88년10월25일부터 88년 11월5일(토) 오후1시까지 대한양계협회 사무국((02)752-3571~2)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4회 전국닭고기요리솥씨대회 -11월11일(금) 여의도 63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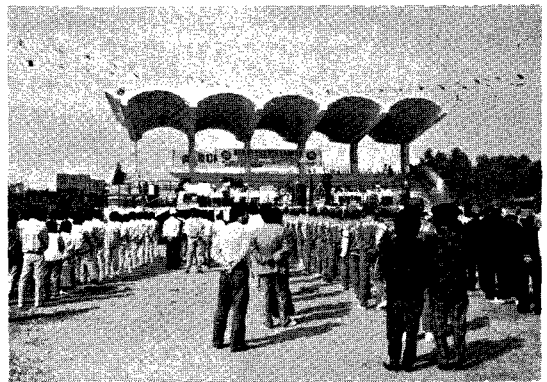
새롭고 다양한 닭고기요리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제4회 전국닭고기요리솥씨대회가 오는 11월11일(금) 서울시 여의도 대한생명빌딩(63B/D)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전국에서 342점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난 10월28일(금) 서류(닭고기조리법에대한 원고)심사를 하여 60점을 선정하였다.

서류심사에 합격한 60명은 솥씨대회 당일 13시부터 현장에서 원고대로의 새로운 닭고기요리를 직접 조리하며, 특히 이날은 닭고기요리 강습회, 닭고기 영양강의 및 행운권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 있다.

본 행사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500명에 대해 기념품 증정과, 행운권추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전남지부 추계체육대회 개최



지난 10월22일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가 주최한 전남 양계인 체육 대회가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양계관련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 지역 계우회 및 분회, 사료업체, 상인단체 등이 참석하여 축구, 씨름, 릴레이, 줄다리기, 공굴리기, 계란나르기의 종목으로 나누어 우승을 겨뤘다.

최우수상에는 옥성계우회가 종합우승 영광장성계우회, 종합준우승 남평중림계우회, 장려상 화순계우회, 목포분회 채란육계팀, 참가상 여수여천분회육계팀, 응원상 광산채란계팀, 인기상 비야계우회, 매력상 순천승주분회팀이 각각 차지했다.

**부산·경남지부 제11회
체육대회**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손종현)가 주최한 제 11회 종합친선체육대회가 지난 10월26일 김해공설운동장에서 축산관련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가 단체로는 지부에 편성되어 있는 12개 지역 단체 및 분과위원회, 사료업계, 동물약품, 기계기구, 유통업계 등이었는데 이날 행사 경기 종목은 100m, 남여400m(계주), 어화동동내사랑, 씨름, 축구, 과자먹기, (공)공구르기, 줄다리기, 1600m중거리를 놓고 기량을 겨루었다.

종합우승은 고성분회가 차지하여 우승컵 및 TV, 준우승은 거제분회가 장려상은 양산분회가 각각 차지하여 영광의 우승컵을 안았다.

육계인대회 협찬업체 감사패 전달

—육계인대회 추진위원회—



육계업계의 조직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많은 육계인의 호응속에 열린 전국 육계인대회에 협찬을 아끼지 않았던 (주)미원과 (주)대부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감사패 전달은 본회 육계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난 10월27일 장민기 대회장과 강석부사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10월 육계분과 위원회 개최

지난 10월 27일 본회회의실에서 10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를 개최하였다.

육계시세는 하이 1,050~980원, 세미 1,050~950원으로 지방보다 서울지역이 약간 높은 것이 특징이었고 병아리시세는 230~280원의 높은 편으로 육계는 출하할 물량은 많지 않고 소비도 활발한편은 못되나 육계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입추과열조짐이 나타나고있어 근래보기드문 병아리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었다.

특히 연말 병아리 입추에 대해서는 병아리값이 상승, 돼지고기 가격하락, 겨울난방비상승, 세미출하량 감소 등의 악재들이 많아 전망이 밝은 편은 못되지만 지금까지 입추량이 많지 않아 빈계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입추열기가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입추수수를 기본계획보다 약간씩 줄여 입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육계분과위원회는 11월24일에 육계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료자동시설, 난방자동화 등 시설이 근대화된 육계농장을 견학함과 동시에 월례회를 개최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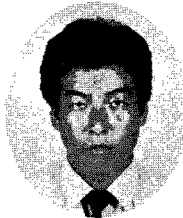
89년도 다이어리 제작중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매년 시행하고 있는 89년도 다이어리제작이 금년에도 축산관련업체의 협찬을 받아 제작중에 있다.

다이어리는 4×6배판으로 협찬업체의 광고 및 축산관련 업계 및 양계장의 주소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89년도 1년 행사를 기록할 수 있는 달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어리가 다량 필요한 회원 및 업체는 88년도 11월말까지 본회로 연락하면 구입할 수 있다.

**전국 육계인의 높은 뜻이 이루어낸
홍보협찬금 8,257,000원**



김봉림



김채방



강석부



김홍국

양계업계의 긴 불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양계인들이 모여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하여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함께 양계인 결의 및 소비홍보 협찬금을 모았다.

당초 소비홍보 협찬금은 1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9월 말까지 76,200,000원이 모금되는 저조한 실적이었으며, 지난 10월13일 육계인대회시 전국의 육계인 134명이 8,257,000원을 현장에서 일시에 모금하는 큰 성의를 보여 10월25일 현재 85,257,000원이 거출 되었다.

10월 중 50만원 이상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 이중선((주)대부) : 3,000,000원
- 김홍국((주)하림) : 1,000,000원
- 김채방((주)미원) : 800,000원
- 강석부(부영농장) : 500,000원
- 김봉림(성림농장) : 500,000원

**단체급식소 영양사 대상 요리강습회
-1988. 10. 14(금) 인천시상공회의소-**

지난 10월14일(금) 인천시 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내 단체급식소 영양사대상으로 닭고기요리 강습 및 시식회가 개최 되었다.

인천시상공회의소 주최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주관하고 본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영양사 100여명 참석하였다.

**남아를 선호하는 사람은 닭간을
-양계산물 우수성 기사 게재-**

본회는 가정주부를 주 독자층으로 이루고 있는 가정뉴스(가정신문사 발행10/30자)에 닭고기·계란의 우수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인 닭고기는 피부미용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닭간은 남아를 수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계란은 술꾼의 지방간을 막아주며 혈관을 강화하고 고혈압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많은 매스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새로운 기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양계인은 본회에 연락해 주길 바란다.

편집위원회 개최

창간 19주년 기념호(통권 229호)를 더욱 알차게 발행하기 위해 제10차 편집위원회가 지난 10월14일(금) 오후4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축산업계에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월간양계의 대중적 가치를 더욱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업계내의 문제를 도출 해결방안을 독자와 더불어 함께 모색하는 지면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창간19주년 기념으로 한인규교수와 이진표사장을 선정, 대담을 통하여 2000년대 축산업전망을 듣기로 결정하였다.